



서구, 사회적경제기업가 박혜린 대표 특강

광주 서구는 13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세계 최초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이노마드 박혜린 대표를 초청해 사회적경제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인 박혜린 대표는 대학 재학 시절 인도 여행 중 현지에서 전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세계 최초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개발, 매출 70억의 기록을 세웠다.

박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넷제로(Net-Zero)의 시대, 새로운 기회와 리더십'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가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또 이노마드 기업의 성장스토리와 함께 청중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축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신개념 암 면역 치료제 개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세균 활용 신개념 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 관련 연구논문이 저명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핵 의학과 민정준 교수-전남대 의대 홍영진 교수 연구팀이 최근 신개념 면역 치료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살모넬라와 대장균, 비브리오 등 세균이 유전 공학적으로 융합된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제작, 종양 미세 환경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이러한 새 치료법이 담긴 연구논문 '이중 약물을 탑재한 엔지니어링된 살모넬라를 이용한 종양 면역 미세환경의 재프로그래밍'은 저명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이달 6일자로 소개됐다.

민 교수는 "강력한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 면역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적십자사, 마음치유 프로그램 1회차 성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복권기금(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봉사원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숲에서 쉬다' 1회차를 진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적십자봉사원 20명을 대상으로 천연염색, 티블렌딩, 숲테라피 등 숲체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지-정서-신체 능력 강화를 통한 치매예방 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박재홍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적극 임해주시는 봉사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숲에서 쉬다'는 총 3회차로 운영되며, 2~3회차는 각각 9월과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 기자



광주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전개

광주시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배달·택배·퀵·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광산구 신창동 신가지구사거리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정한 휴식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상권이 밀집해 이동노동자가 많은 광산구 신창동 신가지구사거리를 선정, 찾아가는 커피차를 운영했다. 커피차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음료들을 제공하고, 얼음 생수-이온음료-차약세트-반창고 등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 킷'을 제공했다. 광주시는 택배노동자-배달라이더 대상 생수나눔 캠페인,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운영 등 이동노동자들의 건강·휴식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 서구, 스타트업 공유사무실 지원

광주 서구가 서구스타트업센터(농성역 지하1층) 내 공유사무실을 마련해 청년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등 1인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

서구는 지난 12일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입주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랜인바이오(대표 조인아, 반려동물 덴탈케어 제품 개발) △플렉스메디(대표 최재혁-이원근, 인체 삽입용 의료용품 개발) △지니어스컨설팅(대표 김여진, 청년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사업 추진) △예비창업자 박진영(소규모 주문 기반 한지상품 생산, 대한민국 한지대전 문체부장관상 수상)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5월까지 상품·서비스 고도화 등 창업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공유사무실은 온라인 서비스 및 IT기술 기반 기업, 1인 창조기업 등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은 센터 내 창작 스튜디오, 회의실, 북카페 등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상이 기자



광산경찰, 다문화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광주 광산경찰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학교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광주의 다문화 학생 5111명 중 48.5%(2480명)가 관내 학교에 다닐 만큼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다.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가 주관하는 다문화 청소년 경찰학교는 출생-이주 배경이 다른 다문화 청소년의 범죄위험 노출을 예방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해소와 건강한 성장·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범죄예방, 과학수사, 모의법정, 교도소 체험 등 교육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 사례와 처벌조항을 강조하고, 중독으로 인해 사기·갈취 등 추가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김상철 기자

인사

국회의원 전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고영호 전 여수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박성일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광주·전남 지회장 △김채곤 전남도당 부위원장 △박일용 전 전남도당 서남권도서개발위원장 △김덕순

별교묘막 대표 △최성국 목포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이재일 제일케미칼 영업부 유독물 관리자 △이병주 전 전남도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안태진 와이컨설팅 대표 △이도현 전 전국위원 △나훙진 목포대 총동문회 부회장



돌쇠네농산물, 취약계층 이웃 1500만원 상당 물품 기부

"어려운 경제상황 속 도움 되길" 7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6% ↑

2.6%(전월 대비 0.3% 상승)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사랑의열매)는 돌쇠네농산물이 높은 물가로 침체된 경제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광산구에 작두콩티 및 작두콩차(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진)

조희석 돌쇠네농산물 대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광주 지역 이웃들이 잠시라도 여유를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돌쇠네농산물 물류창고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조희석 돌쇠네농산물 대표, 이육근 투게터광산나눔재단 사무처장, 김윤하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복잡한 중간 유통구조를 없애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돌쇠네농산물은 이번 물품 기탁 외에도 광주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큰 경제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사회 나눔활동 외에도 엄격한 품질 관리와 신선한 농산물 공급, 친절한 고객 서비스로 누적 회원수가 약 110만명에 이르며 상품 재구매율은 60%에 달한다. 박찬 기자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으로 전년 대비

류다인, 앤드마크에 새 등지... 전종서와 한솔밤

배우 류다인(사진)이 앤드마크에 새 등지를 틀었다.

지난 2월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에서도 활약했다.

13일 앤드마크는 "매력적인 마스크와 다재다능한 끼를 갖춘 류다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앤드마크는 배우 강해림, 김소진, 김용지, 김종훈, 김현수, 류덕환, 백진희, 신시아, 예원, 유유진, 윤이재, 이주빈, 전종서, 주세빈, 진서연 등이 소속돼 있다. 뉴시스

류다인은 지난 2020년 JTBC 드라마 '18 어게인'으로 데뷔했다. tvN 드라마 '일타스캔들' (2023)에서 의리 넘치는 장단지 역을 맡아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여자친구 출신 소원,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그룹 '여자친구' 출신 소원(사진)이 데뷔 이래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 저와 팬들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팬미팅 티켓 예매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유니온픽처스는 "이번 팬미팅은 대만, 일본, 한국에서 열린다. 소원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소원은 지난 2015년 걸그룹 여자친구 멤버로 데뷔,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 '너 그리고 나'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다.

소원의 첫 아시아 팬미팅에 대해 "성공적 팬미팅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기획되고 있다"고 알렸다.

2021년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오작한동거' (2022)에 출연했다. 올해에는 영화 '아름 새로운 시작'을 시작으로 드라마, 예능 등으로도 활동을 넓혔다. 뉴시스

소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 이번 팬미팅